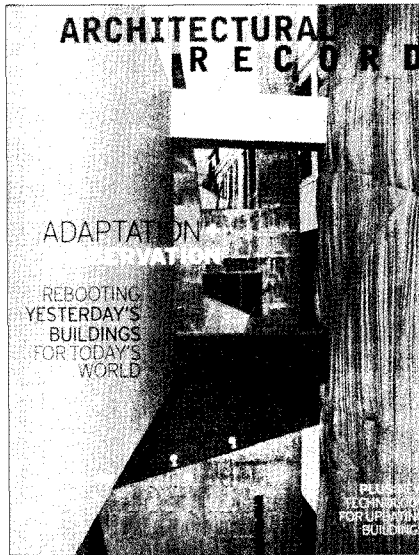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에서는 요즘 건축업계의 큰 화두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보존'에 대한 큰 주제 하에 각 섹션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project 섹션에서는 'Adaptation+Preservation(순응+보존)'이라는 주제 하에 오래된 건물을 현대에 맞추어 되살린 건물들, FXFWOLE와 함께 한 Diller Scofidio+Renfro의 Lincoln Center, Alice Tully Hall, Olson Sundberg Kundig Allen Architects의 Wing Luke Asian Museum, ARGE Grazioli Krischanitz의 Rietberg Museum, Dan Hanganu+Côté Leahy Cardas의 Espace 400e, Marion Blackwell Architect의 The Fulbright Building, 그리고, Paulo Mendes da Rocha의 Our Lady of the Conception Chapel을 소개하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Preservation battles, past and present'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 Books

Pre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by Theodore H.M.Prudon. John Wiley&Sons, 2008

미래는 과거가 아니다. 이 말을 염려했던 사람은 20세기 중반의 건물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때 호화롭고 대담하였으며 당시의 미학과 사회적인 유망했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중세시대의 건물로 바뀌어 간다. 많은 건물들이 현재 잊혀져가고 잘못 사용되고 있으며 무너질 것 같은 징후를 보인다.

이미 많은 건물들이 사라져갔다. 물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환경보호운동도 그럴 것이다. 건축사이자 근대 건축의 보호를 장려하는 DOCOMOMO/US의 교장인 이 책의 저자 Prudon은 두 개의 두툽한 책을 하나로 엮었다.

하나는 모더니즘의 철학과 역사 그리고, 그 보호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20세기 랜드마크가 되는 31개의 케이스 스터디들을 정리해 놓았다. 대부분 유럽에 있는 작품들이어서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 순수한 예제인 만큼 교육적 가치가 있다. 특히 이 책은 모더니즘을 보호하기 위한 철학적이고 실제적인 이슈를 재치있게 다루고 있으며 Prudon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건축이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에 다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James Marston Fitch: Selected Writings on Architecture, Preservation, and the Built Environment: Edited by Martica Sawin. W.W.Norton, 2007

환경보호에 있어 위대한 전문가 중 한 사람인 James Marston Fitch(1909~2000)은 환경보호에 대한 무관심을 오늘날의 하나의 운동으로 승화시킨 건축가이며 교육자, 비평가, 행동주의자였다.

그는 재단설립자이자 Columbia 대학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지도자(1964~77), 그리고 미국 건축에 관한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그의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대한 그의 엄청난 공헌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1933~1997년까지에 이르는 그에 관한 수필, 기사, 대담, 그리고 기타 기록을 모아놓은 이 책은 테네시 출신인 그의 초기 방랑자적인 생활을 기록한 전기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Fitch의 글의 대부분의 주제는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녹색'으로 가고 있는 오늘날 이 책에 실린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에게 교감을 준다: 낡은 건물은 에너지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낡은 건물을 헐어내는 작업은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건물이 헐어진 그 장소에 지어질 새로운 건물 역시 여전히 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최현아/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I Am a Monument : On Learning from Las Vegas: by Aron Vinegar. The MIT Press, 2008

1968년에 Robert Venturi와 Denise Scott Brown은 Las Vegas에 있는 Yale 디자인 스튜디오의 3학년생을 맡고 있었다. Scott Brown은 사막의 태양에 때문에 멍해지기도 하고 현란한 간판에 의해 현혹되기도 했고 또 그들이 본 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였다고 회상한다. 이 책은 1972년에 Robert Venturi와 Denise Scott Brown가 출판한 Learning from Las Vegas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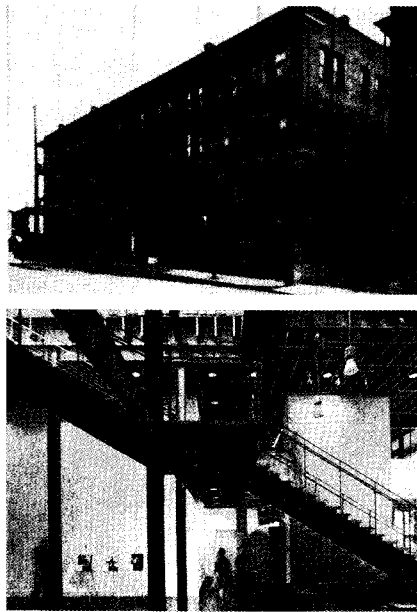
■ Projects

“현재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 1984년에서 적고 있다. 이 우울한 글은 역사적인 보존이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투쟁이 그토록 자주 일어나도록 하는 까닭을 설명해 준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보존하는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안목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보존을 위해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건물을 남겨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이고 남겨진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또다른 논쟁을 일으키기 일쑤이다. 우리가 보존하기를 바라는 만큼의 특성을 간직한 채 건물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오늘날 모든 것이 뒤섞인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른 시대를 품어냈던 건축의 특성의 조합에 보다 안정감을 느껴왔다. 이번 프로젝트 섹션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들은 옛것과 새것을 결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Wing Luke Asian Museum, Seattle / Olson Sundberg Kundig Allen

Olson Sundberg Kundig Allen Architects는 평범한 건물을 Wing Luke Asian Museum이라는 기억에 남을만한 건물로 바꾸어 놓는다.

중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1910년



Wing Luke Asian Museum

지어진 이 벽돌 건물, East Kong Yick이 박물관이 되었을 때 그 어떤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일종의 건축적 특징은 매우 부족하였다. 어떤 호화로운 계단, 매력적인 디테일, 혹은 멋진 건축재료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 간단하게 생긴 건물과 고군분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제한된 공간은 새로운 Wing Luke 아시안 박물관의 비축해둔 자산을 보여주었다. 이 오래된 건물이 가지는 의미를 간직한 채 현대적인 시설로 리노베이션하는 것은 Olson Sundberg Kundig Allen Architects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었다. 170명의 중국계 미국인이 공동부담하여 지어진 이 East Kong Yick과 좁은 길 사이에서 둔 Canton Alley라 불리는 유사한 건물은 윗층에는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도로와 같은 레벨의 공간은 소매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 밀려오는 이주민들을 동쪽 건물의 2층에 수용할 수 있었으나 더 이상 도시의 건물 코드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2층은 폐쇄되었고 그후 30년간 1층의 가게만 사용하고 있었다.

Rick Sundberg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는 먼저 East Kong Yick 건물의 유기된 2층 공간을 살펴보고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판자로 둘러쳐진 공간을 이 프로젝트의 주요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Rick Sundberg과 그의 팀은 가능한 한 이 낡은 건물을 보존하고 대체하거나 바꾸어야 하는 모든 것을 재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 디

자인은 본질적인 리노베이션을 제안하였으나 Sundberg는 급진적인 방법은 피하였다. 그의 계획은 드라마틱한 철제 계단을 설치하고 입구 로비의 천정을 2층 높이로 만들기 위해 2층의 대부분을 제거하였으나 동선으로써 판자로 둘러쳐졌던 공간은 그대로 사용하고 낡은 재질은 재활용하였다. “나는 모두에게 ‘건물에서 없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Sundberg는 이야기한다. 그의 디자인 팀은 버려진 마루널을 새로운 멋진 계단의 디딤판으로 사용하였고 낡은 방화문에서 사용했던 주석을 이용하여 로비의 대표소를 클래딩하였다. 건축사는 판자로 둘러쳐진 공간에 자연광이 흘러들어오도록 계획하였고 기존의 목재 창문은 그대로 둠으로써 낡은 창문이 가지는 투박한 매력을 그대로 살려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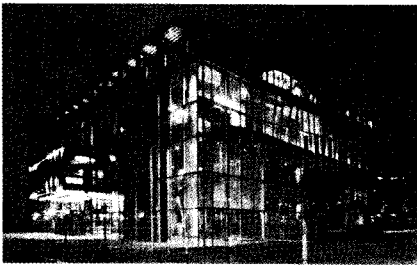
Sundberg가 희망했던 것처럼 복원된 판자로 둘러쳐 있던 2층 높이의 공간은 옛것과 새로운 것을 연결해 줌으로써 이 박물관의 동선으로도,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로비로부터 새로운 계단을 올라 2층에 닿으면 천장에서 태양광이 쏟아져 내리는 공간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그 천장에는 ‘편지 구름(Letter Cloud)’ 라는 Erin Shie Palmer와 Susie Kozawa의 작품이 장식되어 공간에 움직임의 더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과 역사가 깃든 웃감에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짜 넣음으로써 오래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 건물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현재 Seattle의 중요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space 400e, Quebec / Dan Hanganu+Côté Leahy Cardas

Dan Hanganu+Côté Leahy Cardas는 기존에 Quebec의 해안가에 있던 창고를 램턴 같은 Espace 400e로 변형시킨다.

조약돌로 된 도로와 17~18세기 풍의 건물로 유명한 Quebec시는 북미에서는 드물게 과거의 유럽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장소이다.

오래된 도시의 역사적 요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곳에는 Quebec시가 훨씬 매력적인 유적지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Quebec시 근처의 Saint Lawrence 제방은 19세기 전성기에 운송의 요충지로서 사용되었던 것만큼 현재는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곡물의 보관창고와 굴뚝은 산업의 증거로 남아있다. 여전히 사용되고



Espace 400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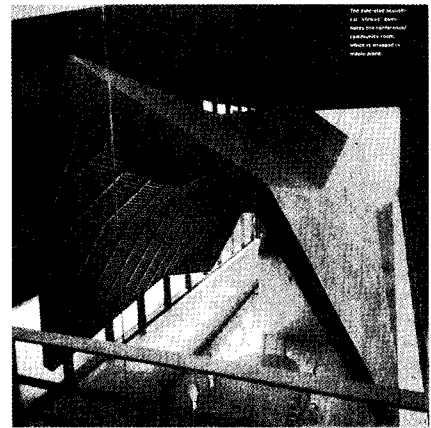
있는 부두는 공원과 도로와 연결되어 재창조된 도시의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Quebec시에 인공항구의 끝에 부두가 세워진지 4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를 추진할 본부가 있을 곳으로 이곳이 정해졌다. 그것이 'Espace 400e'로 알려진 건물이며 이는 2008년 여름에 기념일과 관련된 전시회, 퍼포먼스, 그리고 다른 이벤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축제가 끝나면 캐나다의 이민의 역사를 음미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사용될 것이었다. 50년대 중반 3층으로 된 콘크리트로 된 창고 건물로 지어진 이 곳은 30년 후 Quebec항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서 전환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이 건물을 허물어버리기 보다는 이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들은 이를 확장하고 변형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기존의 박물관 크기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건물을 남쪽에 새로이 지었으며 기존의 건물과 새로운 건물을 연결하기 위해 중간에 눈부신 커튼월이 조화를 이루는 콘크리트로 된 공간을 삽입하여 천창으로부터 태양광이 공간 안으로 흘러들어오게끔 하였고 사람들은 두 공간을 연결하는 램프나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건축사들은 파사드 내부에 있는 기존 건물의 알루미늄 패널 클래딩은 그대로 보존하였다. 이로써 생긴 두 겹의 외피는 건물이 허물어지면서 생기는 파편들을 최소화하면서 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이 역시 기존의 구조와 새로운 건물 사이의 새로운 결합을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새로운 외피로 인해 Espace 400e는 기타 클래스 박스와

는 다르다. 비록 커튼월이 낡은 건물의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있지만 기존의 클래딩은 여전히 외부에서 볼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패널의 반은 실내의 프로그램에 따라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게 조절할 수 있다. 외부에 쓰여진 유리의 많은 부분은 19세기에 사용된 배가 프린팅되어 있다.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전시대가 설치될 때까지 현재 이 건물은 닫혀진 상태다. 그러나 내년 봄 이 건물이 다시 개방될 때, 방문객들은 로비를 통해 부두의 끝까지 이동해 다닐 수 있을 것이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천으로 싸인 벽으로 된 이벤트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구겐하임 박물관처럼 전시를 보기 위해 아래부터 위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박물관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볍고 반사되는 백색 혹은 부드러운 회색의 표면으로 되어 있는 슬롯같은 아트리움을 지나게 될 것이다. 밝고 다이나믹한 느낌의 아트리움과는 대조적으로 내부 갤러리는 블랙 박스와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공간은 비워져 있어 이 공간의 기능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방문객의 주위를 끝난 공간으로 보여진다. 단순한 공간은 어두운 회색을 띤 에폭시 도장을 한 바닥과 검정색 벽과 천장과 더불어 기계적인 시스템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Espace 400e는 이 건물이 놓여진 대지의 풍부한 컨텍스트를 잘 받아들인면서 인상적이고 이 시대에 걸맞게 새로이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Fulbright Building, Arkansas / Marlon Blackwell Architect

Marlon Blackwell Architect는 노화된 The Fulbright Building의 품위를 되찾게 해준다.

Arkansas의 Fayetteville에 1962년 지어진 이 공공 도서관, Fulbright Building은 이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끝자락에 있는 녹음이 우거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빅토리아 풍의 주택과 미술공예운동 스타일의 별장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건물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것이었죠."라고 최근 이 건물을 도서관에서 사무실로 바꾸어 놓은 건축사 Marlon Blackwell은 이야기한다. 2004년 도서관의 규모가 커지자 시내의 새로운 건물로 옮겼다. Fulbright Building의 가치를 알고 있는 지역사회는 이 건물을 허물기 보다는 새로



The Fulbright Building

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 건물의 가장 큰 강점은 대지에 놓여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 구조적인 뼈대를 외부에서만큼이나 내부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Blackwell이 이 건물을 보고 처음 생각해 낸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디자인 컨셉인 '병 속의 배(Ship in bottle)'을 발전시켜 외피와 기존의 스틸 구조체의 그리드를 연결시켜 내부공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건축사는 리노베이션한 주계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앴다. 동쪽의 윗층을 확장하여 그 아래에 주차공간을 두었고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이는 건물의 오래된 부분과 새로운 부분 사이의 공간을 결합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Blackwell은 낡은 것을 다시 새것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이 가진 변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기회주의자에 가깝다. 나는 항상 하이브리드와 혼합에 관심이 있어왔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항상 기존의 구조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서로 갈피를 못잡고 주저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디자인하기를 즐긴다"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작은 도시의 건축사인 그는 세계적인 근대적인 언어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일상의 프로그램 안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 ■